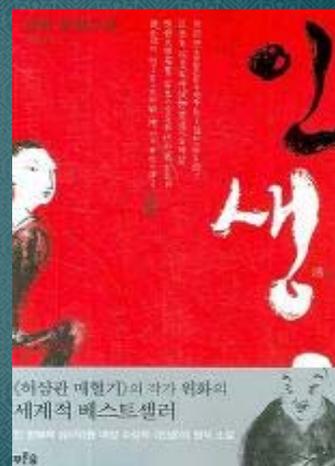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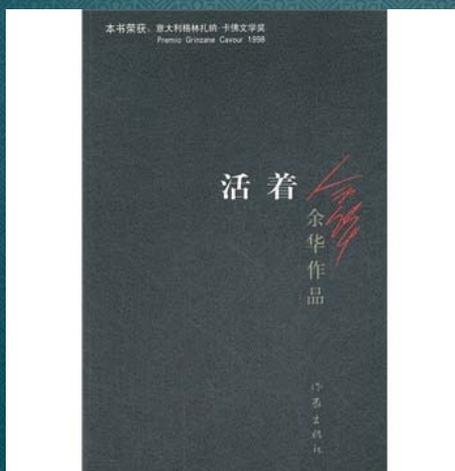


위화의 소설 <인생(活着)>과 영화 <인생>에 나타난 중국의 역사와 중국인의 삶



위화余华 <活着>살아간다는 것>1993

- ☀ 1998년 이탈리아 그린차네 카보우르 문학상
 - ◆ 1990년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TOP 10 선정작
 - ◆ 홍콩 「아주주간」 선정 20세기 중국 소설 TOP 10 선정작

- ☀ 2014년 6월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당당왕(当当网)의 베스트셀러 15위를 차지



위화(余华)

- ☀ 1960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
- ☀ 아버지가 마련해준 도서관대출증을 이용해 매일 책을 읽으며 소년 시절
- ☀ 1983년 단편소설 '첫번째 기숙사'를 발표
- ☀ '세상사는 연기와 같다' 등 실험성 강한 중단편
- ☀ 중국 제 3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주목 받기 시작
- ☀ 두번째 장편소설 '인생' 장이머우 감독에 의해 영화화
- ☀ 세계적으로 '위화 현상'을 일으키는 기폭제
- ☀ 1996년 출간한 장편소설 '허삼관 매혈기'
- ☀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 '형제'가 또 한 차례 세계적인 반향

-
- ☀ 국내 <인생>으로 번역
- ☀ 인생의 제목은 중국어로는 活着이라고 하여 살아간다는 것이란 의미가 더 적절
- ☀ 중국적 삶의 특성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나름의 통찰을 내보임
- ☀ 장예모 감독이 영화화
- ☀ 1994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황금종려상 수상
- ☀ 한국에서도 2014년 연극으로 무대

-
- ☀ 출판된 이래 비교적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차지
- ☀ 예술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이를 감상하는 자의 몫이 됨
- ☀ 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랫동안 재탄생
- ☀ 새로운 모습과 다른 해석
- ☀ 소설 인생과 영화 인생에 대한 해석 역시 독자의 몫

작가의 의도

- ✿ 작자의 사명은 발설이나 폭로나 고발이 아니다. 작가는 진리 즉 도덕적 판단을 배격하는 진리를 찾으려 한다. .. 일체의 사물을 이해한 뒤에 오는 초연함, 선과 악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동정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고상함을 표현하고자..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쓰고자
- ✿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 외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아 니라는 사실을 글을 쓰면서 깨달았다.

소설〈인생〉의 줄거리

< 등장인물 >

- ✿ 민요를 모으는 나
- ✿ 주인공 쉬푸구이(徐福貴)
- ✿ 푸웨이의 아내 자전(陳家珍)
- ✿ 푸웨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 ✿ 아들 유칭(有慶), 딸 평샤(鳳霞)
- ✿ 사위 완얼시(萬二喜), 손자(苦根= 만터우(만두))
- ✿ 룡얼(龍二)/춘성(春生)/대장(鎮長)

- ❁ 나는 소와 대화하며 농사짓는 늙은 농부 푸퀘이의 이야기를 듣게 됨
- ❁ 푸퀘이는 부유한 지주의 아들(창건, 기생, 도박)에서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 룡얼에게 집과 전답을 모두 잃게 됨
- ❁ 아버지는 사흘간 알아눕고 충격으로 똥통에서 사망/동전으로 갚게 함
- ❁ 아내는 성내 미곡상 장인이 꽃가마로 데려감
- ❁ 지주에서 소작인이 됨, 초가집으로 이사

- ❁ 룡얼(룡마님)에게 밭 5묘를 빌려 고단한 농사 시작
- ❁ 농사를 배워가며 땀의 의미를 깨닫게 됨(무명옷)
 "비단옷은 콧물처럼 미끌거려서 불편하다...
 아내 자전이 아들 유칭을 낳아 다시 데려옴
 아내와의 정다운 생활이 시작됨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성내로 갔다가 다툼에 휘말려 국민당 군대에 끌려가게 됨
 "국민당 장교가 도망가는 뒤에 총을 쏘"

- ❁ 국민당 군대에서 어린 소년병 춘성과 노병 라오친을 만나 괴로움을 견디며 오직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만 함
- ❁ 십만명이나 되는 국민당 군대가 포위됨
- ❁ 처참한 내전상황 묘사-부상병 전사,중대장 도망
- ❁ 공산당군대(해방군)의 승리로 포로가 된 뒤 여비와 음식을 받아 귀향"해방군이 잘 해 준건 잊지 말자 "

- ❁ 이년만에 귀향 , 어머니는 이미 사망, 딸 평샤는 열병으로 귀가 멀어 병어리가 됨
- ❁ **토지개혁**- 왕얼 지주 공산당이 재산몰수
- ❁ 총살당함- "너 대신 내가 죽는구나
- ❁ 복 바라지 않는다, 너의 신만 매년 삼아주고 싶다/ 가족이 매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복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

-
- ☀ 힘들고 고된 삶,
- ☀ 아들 유칭을 공부시키기 위해 평샤를 18세에 남의 집에 보내기로 함, 유칭은 학교가기 거부
- ☀ 평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함께 생활
- ☀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평샤를 돌려보 내지 않겠소 ”
- ☀ 유칭은 대약진(大躍進)의 시작으로 인민공사(人民公社)에 애지중지하던 양 두 마리를 넘겨 줌(50리)
- ☀ 양 두마리를 기르면서 달리기 실력을 지니게 되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를 그만 두려함

-
- ☀ “손바닥 자유경작지만 남기고 대장(촌장)이 배정 해준 일하러 흠어짐”
- ☀ 속상해했지, 술도 가져갔지.공동식당서 또 고기를 먹네, 풍수가 좋은 땅서 철을 녹여야 “
- ☀ 집을 잃을 뻔 한 운명이 아닌가
- ☀ 이강철로 포탄 세알을 만들수 있네 타이완에 쓰는 거지, 장제스의 침대에 밥상에, 양우리에
- ☀ 푸구이 오늘 식당의 빠오즈에 양고기를 넣었네.
- ☀ 10공분으로 일한 양을 정해서 배분
- ☀ 공부안하려는 유칭을 때림, 새끼 양을 사줌- 유칭 과 푸구이
- ☀ 결국 새끼양을 팔아 곡식 마련

.....

☀ **고구마 하나를 두고 다투는 지경**

☀ 대약진시기의 어려운 농촌: 굶게 되는 상황에서 자전은 쌀 한줌을 가슴에 숨겨옴

향기로운 죽

자전의 병세가 날로 악화- 당신은 우릴 이렇게 쉽게 버리겠다는 거야

☀ 5학년 때 교장(현장)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 수혈을 못해 사망하려 하자 혈액형이 맞는 유청이 수혈하다 어처구니 없게 피가 모두 뽑혀 사망- 하나밖에 없는 아들

.....

☀ 저항을 하려 했지만 교장이 춘성이라는 사실에 적당히 용서

☀ 아들의 죽은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무덤을 찾으며 회한에 잠김

☀ **나에게 너무나 무덤덤하게 말함**

☀ 아내 자전은 구루병이 점차 심해지고 아들의 죽음 앞에 스러질 뻔 했으나 다시 기운을 차림

- ❁ 자전은 힘들게 삶을 이어감
- ❁ 평샤는 나이가 들지만 결혼상대자가 없어 놀림감이 됨
- ❁ 마오주석의 훈화를 들으시오- 성안은 문화대혁명으로 시끌
- ❁ 대장의 주선으로 목이 빼뚫어진 성안의 사람 완얼시(운송일)와 결혼
- ❁ “평샤가 다른 애들에게 끌리게 할 순 없어요”

- ❁ 성안사람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어, 결코 계급투쟁을 잊어서는 안된다, 폭풍과 격랑속에서 전진한다. 평샤와 완얼시의 베개잇 그들은 마오주석의 말씀위에서 잠을 잔다
- ❁ 마을의 대장도 홍위병에게 봉변을 당함
- ❁ 춘성이 찾아와 용서를 구함, 문화대혁명으로 반동 주자파(走資派)로 몰려 자살함

- ☀ 평샤를 무척 아끼지만 평샤는 아이를 낳다가 유청이 죽은 병원 같은 방에서 또 사망
- ☀ 평샤가 죽은지 세달 뒤 자전도 사망
- ☀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겠다"
- ☀ 성안과 밖을 다니며 사위와 손자를 돌봄
- ☀ 완얼시가 시멘트판 사이에 끼어 아들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불행하게 죽자(같은 병원)
- ☀ 4살배기 손자를 데려와 농촌서 키움
- ☀ 7살 몸이 아픈 아이에게 콩을 먹였다가 죽게 됨
- ☀ 도살장에 끌려가려한 소를 사와 푸퀘이로 이름짓고 친구처럼 농사를 지음

- ☀ 노인은 모두 먼저 떠나 보내 슬프지만 자신이 모두를 물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소에게 자전과 유청과 평샤를 불러가며 계속 힘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는다...
- ☀ 어린시절엔 빈둥거리며 놀고 중년에는 숨어 살려고만 하더니 노년에는 중이 되었네
- ☀ 이야기가 끝났을 때 대자연에 어두움이 내려와 광활한 대지가 자기 아들딸의 이름을 부르듯

소설-일상의 삶으로 역사를 서 술

- ✿ 중국의 혁명,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을 대다수 중국인의 입장에서 일상적인 삶이라는 창을 통해 투사함.
- ✿ 현재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였던 지식인의 잣대로만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

- ✿ 소설은 개인의 역경과 운명을 담담히 그려내는데 주력, 운명과 친구되기
- ✿ 이전의 중국소설에서는 도식적으로 계급적 자각이 정치적으로 의식화되는 과정만 주로 묘사
- ✿ 이와 달리 계급적 변화를 인간성 회복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특징도 드러남.

① 내전시기

- ✿ 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막바지에 이를 즈음 푸구이는 타의에 의해 전쟁에 끌려갔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의 도정에 오르게 되며, 해방후 푸구이의 삶에 대한 재산을 도박으로 걸치며 간 룡얼의 죽음 속에서 푸구이는 운명과 마주하게 된다.
- ✿ “ 총알과 돌아갈 여비, 쓰레기 취급당한 채 죽어간 부상자들과 만터우, 국민당군과 해방군, 어둡추린 사람에게는 만두를, 칩으로 돌아가고 싶을 사람에게는 여비를 준 중국공산당의 행위에 대해 이해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운명과 친구되기

- ✿ 푸구이는 지주에서 농민이 된 것을
- ✿ 몰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농민이라는 존재로서의 삶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야 함.
- ✿ - 땅과 노동에 대한 강렬한 희구,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 “ 이전에 입던 비단옷은 콧물처럼 미끈거리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
- ✿ 한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둔한 새가 먼저 난다고 달빛이라도 있으면 흙 속에서 일하며 힘든 일상을 극복하려고 함.
- ✿ → 생존과 삶에 대한 희열이 그려져 있음

.....

☀️ 결국 누추하고 범상한 삶이란 없다. 누구의 것이든 살아간다는 것은 강하고 슬프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냄.

☀️ 지주계급의 해체라는 역사적 사건

.....

☀️ → 단순한 운명의 순응이라고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몰락이나 계급적 의식화가 아닌 새로운 태어남, 노동과 땅에 대한 의미를 자각하고 (스스로 노동하여 일하며 먹는 삶)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계의 회복, 사랑과 우정의 회복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운명은 다시 깊은 인생의 깨달음과 변화로 이어진다

- 중국인에게 있어 가족의 의미
- ☀ 가족은 인생의 모든 것, 가족은 곧 자신, 오랫동안 가족과 자신을 일치해온 중국인의 삶에서 아들과 딸의 죽음은 처절한 아픔, 인생의 고뇌와 고통의 상징
- ☀ 결국 늙어버린 자신과 늙은 소만 남은 궈이푸의 삶에서 여전히 가족은 삶의 목적이자 자신으로 등치된다.

용서와 우정, 이해

- ☀ 전쟁터에서 만난 노병 라오취안, 춘성과 절박한 지경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우정
- ☀ 아들의 죽음을 옛 전우의 삶으로 용서하며 이겨냄
- ☀ 춘성이 문화대혁명으로 고초를 겪자 그의 이름을 찾아주며 폭압에 인간적으로 대응하여 춘성을 구해주고
- ☀ 춘성이 삶의 의지를 잃고 마지막으로 찾아오자 자전조차 그의 죄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죄를 갚으라고 격려한다.

- ❁ 뛰어났지만 생명력을 상실한 개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 ❁ “사람 목숨이 아무리 질겨도, 일단 자기가 죽겠다고 마음 먹으면 무슨 수를 써도 살 수가 없는 법이라네”라고 하여 생명력을 삶에 대한 존중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냄

남녀간의 사랑

- ❁ 푸구이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자전의 기다림,
- ❁ 자전의 힘든 노동을 안쓰러워하는 남편의 아내사랑,
- ❁ 전쟁터에서 돌아 왔을 때 오래 오래 남편에게 신을 삼아주고 싶다고 하고
- ❁ 다시 태어나도 푸구이의 아내가 되어 살겠다는 자전
- ❁ 시집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평생 고통에 휩싸여 살다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전을 바라보는 푸구이의 안타까움

- ✿ 평사의 곤한 운명을 성대한 혼례로 벗겨주려 한 열시
- ✿ 모기에게 있는 대로 뜯긴 뒤 아내를 편안히 잠들게 하는 가난한 남편의 사랑
- ✿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사경을 헤맬 때 아이보다 아내를 원하고
- ✿ 죽을 때까지 아내를 잊지 못하는 절절함
- ✿ 이기적 사랑으로 치닫는 현실을 돌아볼 때 감동적.

주제

- ✿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무슨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 ✿ 주인공들의 이름은 모두 이름과는 다른 식으로 살게 됨
- ✿ 같은 병원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놓인 중국사회의 현실을 묘사
- ✿ 교장의 아내를 위해,

영화 보기

- ✿ 복장의 변화:
- ✿ 대약진시기의 특징묘사
- ✿ 철생산, 공동식당
- ✿ 삶에 대한 태도- 춘성과의 대화
- ✿ 문혁시기 묘사- 마오쩌둥 숭배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

- ✿ 영화는 내가 없이 바로 푸웨이를 중심으로 전개, 개인의 이야기 보다 정치와 시대상이 중심이 됨
- ✿ 40년대, 50년대, 60년대로 자막이 처리
- ✿ 중국에서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비슷
- ✿ 그 시대가 상징하는 삶이 있음

영화의 특징

- ☼ 1) 푸퀘이의 직업이 농부가 아닌 그림자극 선수자
- ☼ 2) 유칭과 평샤만 죽는 것으로 나오며 죽음의 과정이 다름
- ☼ 유칭의 죽음-수혈이 아닌 피곤에 지쳐 학교 담벼락 밑에 앉았다가 운전미숙의 현장(춘성)의 차가 담을 부셔 사망, 모두 유칭의 죽음을 자전이 보지 못하게 함
- ☼ 평샤의 죽음- 어린 홍위병이 나이든 의사를 지식인 반동으로 몰고 박해당한 왕교수가 무능한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어이없이 죽어감
- ☼ 소설과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인생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

- ☼ 1949년 공산당 혁명-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공산당 정권, 당정군
- ☼ 인생의 혁명을 보는 시각:
- ☼ 1950년대 토지개혁
- ☼ 지주의 토지를 몰수, 빈농과 고농에게 주고 2천년간의 지주 소작제를 폐지
- 경자유기전- 부농과 중농, 고농, 빈농
- 1953년 사회주의 총노선- 도시의 자본가폐지, 농촌의 토지집단지 실시

-
- ☀ 1940년대는 혁명의 시대, 내전의 시대
- ☀ 1950년대 대약진운동
- ☀ 냉전시기로 고립된 상태
- ☀ 계획경제시대, 농촌의 경제발전을 위해 집단화를 실시, 1958년부터 생산대, 생산대대, 인민공사를 만듦
- ☀ 공동노동, 공동식당, 철강생산, 수리시설, 공동육아"필요한 만큼 " 공산품의 이상주의 운동

-
- ☀ 결국 아사자 수천만명 생김
- ☀ 무리한 생산량을 맞추려 과장보고, 자연재해가 겹침
- ☀ 소설- 인민공사와 생산대에서 식량을 주지 않아 푸성귀, 나무뿌리마저 다 동나 가전이 아버지의 이사이에서 쌀줄을 얻어 가슴에 품고 몰래 돌아와 죽을 끓여 먹고 견뎌, 동네사람들이 와서 솔까지 뒤져보고 대장에게 조금 주게 되자 가전은 아까워 눈물

대약진 운동 1958-60

- ☀ 영화- 철생산을 위해 솔단지까지 공출, 밤을 세워 노동, 아이들도 밤을 세서 피곤한 상태에서 업어 학교에 감, 현장의 차에 치어 숨짐, 실제 대약진의 피해자는 피곤에 지치고 굶주린 아이들이 많았음
- ☀ 국가의 무리한 사회주의 건설 정책이 대다수 인민을 죽음으로 몰고가게 한 사건
- ☀ 마오쩌둥은 이를 책임지고 물러나게 됨

문화대혁명 1966-1976

- ☀ 아직도 중국에서 본격적 논의 되지 못함
- ☀ 상흔문학으로 소개
- ☀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김
- ☀ 공산당의 관료제의 폐해를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정권만 강화시킴
- ☀ 아직도 서로간의 앙금이 남아있음
- ☀ 마오쩌둥에 대한 우상숭배-새로운 문화창출 하지 못함

- ✿ 소설- 춘성이 문혁시기 주자파(주자파)로 몰려 아내도 죽고 자신도 자살
- ✿ 당시 당내 주자파로 지목된 사람들
- ✿ 모욕과 구타로 자살
- ✿ "당신은 우리에게 목숨을 빚졌으니 살아남아야 해"
- ✿ 영화- 춘성, 현장, 병원의 왕교수와 홍위병, 결국 평샤의 죽음, 결혼장면에서 보이는 마오 이상숭배

시대에 대한 평가

- ✿ 인민공사 대약진 시기푸구이는 농민으로서의 삶을 헤쳐 나가고
- ✿ 아들 유칭의 죽음을 목격한다.
- ✿ 피로한 대약진, 잘못된 미숙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중
- ✿ 문화대혁명 시기: 옛 전우였던 춘성의 죽음을 목도함, 영화 병원에서의 부조리함과 딸의 죽음, 현장에 대한 비판.

주제

- ✿ 소설-역사의 급변 속에서 살아내기는 쉽지 않음, 하지만 가족과 이웃과의 사랑과 정을 통해 살아남음, 이것이 급변하는 역사가 만든 운명 속에서 친구가 되어 주인공이 깨달은 삶의 진리, 중국인의 삶에 대한 인내 원천
- ✿ 영화- 1989년 천안문 이후 경색된 중국사회, 그림자극처럼 조정되는 인민과 공산당 정권, 대약진과 문혁의 비극을 비판, 만두를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모색

인생을 보는 다른 시각

- ✿ ① 용서와 화해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
- ✿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푸구이에 대해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대응
- ✿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옛 전우 춘성의 등장으로 슬픔을 머금은 채 쉽게 용서하는 대목
- ✿ 폭력적으로 닥쳐오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
- ✿ 전체적으로 내향적인 중국인의 품성, 중국적 삶의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음.
- ✿ 가족이 죽어가는 병원을 정치중심의 현대 중국의 경직되고 총압적인 사회 현실로 상징하고 있지만 지극히 우회적이고 무력하게 대상화 할 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지는 않음.

② 평범한 삶을 지나치게 미화?

- ☀ 주인공 푸구이의 삶이 평범하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삶으로 끝나게 할 여지가 있지는 않은가.
- ☀ 소설의 말미에 젊었을 때는 방탕하다가 중년에는 도피로 일관하고 말년에 가서는 중이 되었다는 노랫말은 평범한 삶에 대한 자기 회한이 서려있기도 한 것임.

- ☀ 룡얼과 춘성 등 진취적 삶? 비극적으로 매듭 짓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긍정하고 있는지 모름.
- ☀ 중국인의 오늘은 억압적이고 폭력적 현실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대항과 전진의 피어린 과정의 소산이었음이 부각되지 않음
- ☀ 일신의 안일과 가족의 안녕을 과감히 떨치고 일어섰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빛나는 영혼도 있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음.

토론

- ☀ 인생에 보이는 중국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 ☀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가?
- ☀ 노동의 중요성, 가족애, 가족애의 확장
- ☀ 역사와 인생의 관계는 ?